

중세시대 인체미, 복식, 머리 형태에 대한 고찰

- 비잔틴, 고딕시대를 중심으로 -

김옥준* · 김영주

국제대학 피부미용학과

인체는 본래 그자체로서 완벽한 미를 갖춘 대상은 못되지만 정교하고 복잡하며 가장 아름다운 사물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의 중요한 주제로서 표현되어져 왔다. 이러한 끊임없는 시대적 욕망들은 그 시대가 원하는 이상형의 미적 개념과 일치하여 새로운 미를 창조하였다. 어느 시대든 완벽한 신체비례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이상적인 인체미는 복식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특히 특정 시대의 사회적 이상체형은 복식, 머리 형태 등 여러 뷰티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한 뷰티문화에 영향을 받아 변화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복식과 머리형태의 형태적 변천사를 개별적 요소들을 위주로 하여 왔지만 한 시대의 이상적인 인체미, 복식, 머리형태의 필연적 연관성과 그러한 형태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 영향들과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연구는 별로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상체형, 복식 그리고 당대 유행한 머리 형태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 발전했는지 중세시대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모색하였다.

중세의 사상적 흐름은 신학주의, 신비주의, 과학주의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하는 철학적 이데올로기로 이어졌다. 신과 세계를 통일시키는 중세시대의 관점은 신이 인간세계 안에 내재해 있으며 인간은 그러한 신성을 위해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이론으로 중세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체제를 기독교사상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세의 예술적 측면을 개관함에 있어서 비잔틴 문화의 가장 큰 업적은 그리스 고전의 보존자란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며 문학이나 사상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 것은 종교적 신학으로 종교적 찬가와 그리고 종교적인 논쟁에 단련된 사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학저술이 주종을 이루었다. 12세기 중엽에서부터는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회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점차 중세적 기독교 관념에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로인해 조금 더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으려는 노력이 싹트게 되었고 이러한 심리는 자신의 처장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비잔틴시대의 인체 표현은 추상적인 선적원리에 지배되었으며, 평면성이 특징이었다. 신체는 종교적·이유인 정숙, 금욕의 풍조로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은폐형으로 남녀의 성차가 드러나지 않으며 중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비잔틴시대의 복식은 그레코-로만 (Greco-Roman : 그리스와 로마)풍의 양식에 동방로마제국의 수도이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으로 유입된 페르시아의 화려한 색채와 중국의 견직물이 혼합, 발달하였다. 여기에 장신구의 발달은 비잔틴 복식에 다각도로 반영되었고 비잔틴 복식을 그리스, 로마나 서유럽과 매우 다른 형태로 구분 짓도록 하였다. 여기에 기독교적 사상의 영향인 체형을 감지할 수 없는 풍성한 실루엣은 디자인의 독창성, 인체비례,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화려한 색채 감각적 장식으로 신의 영광, 신비로움, 천국의 영화 등을 표현하며 평면성의 극대화로 표현되었다. 또한 진주와 갖가지 화려한 보석 장식은 장식적 재질의 착시효과를 나타내어 복식으로 인한 인체면적 확대의 극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잔틴 시대의 머리 형태는 로마인의 머리 형태와 같이 땀아 밴

* Corresponding Author : kkacsuni@daum.net

으나 리본으로 묶거나 올리는 형태였으며, 고급스러운 실크나 진주, 보석, 밴드 등으로 장식한 망으로 씌워 독특한 형상을 이루었다. 기독교 신앙의 영향으로 13세기 동안 여자들의 머리는 뽀플이나 고깃을 써서 머리카락을 모두 감싸거나 부분적으로 감쌌는데, 머리형태보다 머리를 장식하는 헤어드레스에 장식의 초점이 맞춰진 시기로 이러한 머리장식은 주로 귀부인에게 한정되었으나 비잔틴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장신구였으며 화려한 의상과 잘 조화되었다.

고딕시대의 이상화된 인체 이미지는 큰 머리, 좁은 어깨, 빈약한 가슴, 넓은 골반, 둥글고 볼록한 배, 가늘고 긴 팔과 다리로 인체비례는 8.5 등신으로 길게 표현되었다. 복식의 외관 형태는 종교에 대한 회의로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이러한 심리는 우선 자신의 처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성들의 노출이 시도되어 데콜레테(decollete)가 패션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V자나 U자형 등으로 네크라인이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14세기에는 수세기동안 거의 없었던 남녀의복의 성차가 처음으로 뚜렷해졌는데 여성의 의상은 수직적 효과를 위해 주름의미를 강조하고 신체의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해 상체는 꼭 맞고 스커트는 넓고 길어졌으며, 고딕건축의 첨두적 외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흐르는 듯한 실루엣, 앞이 뾰족한 구두, 높고 뾰족한 모자, 소매와 옷단의 톱니 형태의 디자인은 모두 이러한 예각적 감각을 반영하고 있다.

중세시대 여성의 머리 형태는 고딕시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발달되기 시작해 다양하고 과장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젊은 여성들은 머리를 느슨히 늘어뜨리고 기혼 여성들은 대개 머리를 올렸는데, 한 형태로 머리카락을 뒤에서 반으로 나누고 귀 앞 얼굴 쪽으로 끌어 뺏아 양쪽 귀 위로부터 목 언저리까지 크게 부풀려 주어 원통형이나 원추형 또는 바퀴모양으로 만들었다. 머리카락은 위로 깨끗하게 올려 머리장식 속으로 넣었으며 이마가 넓은 것이 미인의 한 기준이 되어 앞머리를 이마에서 더 넓게 뾰얏다. '에냉'이라는 모자는 고딕건축의 대표적인 특징인 뾰얏함과 직선적인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한 모자이다. 이것은 딱딱한 천으로 원추형 모자를 만들어 그 위에 베일을 덮어 내려 옷자락까지 늘어뜨린 형태로 수직적 착시효과를 가져왔다.

인체미, 복식, 머리형태의 상관관계에 대해 중세 시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본 연구결과 비잔틴 시대에는 종교적 금욕주의로 인해 인체의 실루엣을 가능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복식은 풍성한 실루엣에 인체의 면적이 확대되어 보이는 듯한 착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복식의 소재로는 두툼하고 화려한 직조물 등이 사용되었으며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느슨한 튜닉형의 풍성한 실루엣의 복식을 착용하였다. 머리 형태는 볼륨이나 머리카락의 직접적인 꾸밈보다 머리카락을 길게 뺏아 늘어뜨리는 정도와 뽀플 베일을 쓰거나 망을 써서 머리 형태를 은폐하려 하였으며, 조형적 형태보다 보석이나 진주, 실크 등의 헤어드레스와 장식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 있다. 비잔틴시대의 복식과 머리 형태에서의 풍성함이란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색채와 장식적 질감에 의해 채워진 복잡한 문양 등에 의해 확대되어 보이는 착시효과라 할 수 있다.

고딕시대의 이상적인 인체미는 긴팔과 다리, 빈약한 가슴, 좁은 어깨, 볼록한 배, 넓은 골반으로 8.5 등신이다. 모든 면에서 지배적인 요인이었던 종교에 대한 회의로 좀 더 과감한 의상과 복잡한 장식이 표현되었다. 이상적인 인체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복식의 형태로 윗옷을 몸에 밀착시키고 네크라인이 V나 U자형으로 아래로 내려갔으며 스커트는 주름을 많이 주어 밑으로 흐르는듯하게 하고 망토 등을 이용하여 더욱 더 길어 보이는 착시효과를 연출하였다. 그와 동시에 머리형태도 머리 위쪽으로 높이를 주기 위해 높은 모자 등을 착용했으며 베일을 머리에서 길게 늘어뜨려 역시 수직적 착시효과를 나타냈다.

중세시대의 인체미, 복식, 머리형태의 조형성을 고찰한 결과 이들 각각의 형태적 특징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각 시대의 이상적인 미를 목표로 조화롭게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형태들은 필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